

2006년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 추정 및 시사점*

금년 3월에 발표한 2003년 고용표를 분석해 본 결과, 전반적인 취업계수 하락속도 둔화 및 내수부문과 수출부문의 취업유발계수 하락속도 차이 확대 등과 같은 특징적인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용 및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 판단되며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분석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분석대상연도를 2006년으로 한정하여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및 “경제활동인구통계” 등을 이용, RAS모형에 의거 산업연관표와 고용표를 추정,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제한적이거나 이러한 현상의 지속여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에 있어서의 최근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취업구조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도 기존의 서비스화 현상이 비교적 빠르게 진전됨과 아울러 2003년 고용표를 통해 특징적으로 나타난 현상 즉 전반적인 취업계수 하락속도 둔화 및 내수부문과 수출부문의 취업유발계수 하락속도 차이 확대 등과 같은 현상이 2006년에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 본고는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 박성빈 과장이 집필하였음.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한국은행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2003년에 이어 2006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고 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현상을 야기한 주요 원인이 된 설비투자 증가율의 둔화나 전체 수출에서의 자본, 기술집약적인 제품의 비중상승 등과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2003년에 나타났던 이와 같은 현상이 2006년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되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소비 및 투자와 같은 내수부문 특히 서비스 부문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수출부문에 대해서는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 등을 통해 수출의 국내산업이나 고용에의 파급효과를 증대시키는 한편 국내 경기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큰 기계류나 섬유제품 등에 대한 수출활성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취업계수 하락속도 둔화 현상과 관련하여 이는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I. 머리말
- II. 산업연관표 및 고용표 추정
 - 1. 산업연관표 추정방법(RAS기법)
 - 2. 산업연관표 및 고용표 추정과정
- III. 2006년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추정결과
 - 1. 취업구조
 - 2. 취업계수
 - 3. 취업유발계수
 - 4.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효과
- IV. 요약 및 시사점

I. 머리말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고용표¹⁾는 금년 3월에 발표된 바 있는 2003년 고용표인데 동 고용표와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연관효과 분석을 통해 취업구조의 서비스화 진전 등과 같은 기존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향후 우리나라의 고용 및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참고할 만한 특징적인 현상들도 포착되었다. 그중 주요한 것으로 2003년의 산업별 취업계수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산업별 취업계수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동 취업계수의 하락속도는 과거에 비해 뚜렷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²⁾과 최종수요항목별 취업유발계수의 분석결과 소비와 투자의 경우 취업유발계수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둔화된 반면 수출의 경우에는 취업유발계수의 급격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³⁾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용 및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 판단되는 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

-
- 1) 고용표는 산업연관표 부속표의 하나로 각 산업부문의 산출액을 생산하기 위해 1년동안 실제 투입된 노동량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작성한 표임. 이러한 고용표는 고용구조 뿐 아니라 최종수요의 변동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고 산업부문별 노동생산성 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음. 한편 고용표상의 산업별 노동량이란 1년동안 각 사업체에 투입된 노동량을 연인원(man-year)개념으로 계측한 것으로 이는 한 사람이 1년동안 수행하는 작업량을 의미함
 - 2) 전산업 평균 취업계수(2003년 불변가격 기준)는 2003년에 10.4(명/10억원)로 나타나 1995년 15.9(명/10억원), 2000년 11.8(명/10억원)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하락속도는 둔화(1995~2000년:-5.8% → 2000~2003년:-4.1%)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3) 최종수요항목별 취업유발계수(2003년 불변가격 기준) 추이를 보면 소비와 투자의 경우 취업유발계수의 하락세가 뚜렷이 둔화된 반면 수출의 경우에는 취업유발계수의 급격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4> 참조

타난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경제 및 고용 구조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분석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와 아울러 향후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 및 예측이 필요한 바, 본고에서는 이중 전자에 한정하여 추정 및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런데 산업연관표와 고용표는 통상적으로 실측표의 경우 5년주기, 연장표까지 포함하더라도 2~3년주기로 작성될 뿐 아니라 작성기간도 실측표의 경우 통상적으로 2년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이용한 추가적인 분석결과의 도출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및 “경제활동인구통계” 등을 이용하여 RAS모형에 의거 2006년을 대상으로 산업연관표와 고용표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2006년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를 추정,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특징적인 현상의 지속 여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에 있어서의 최근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 본고의 분석에 사용된 2006년 산업연관표 및 고용표의 추정 방법 및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이어 III장에서는 이를 기초로 산출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각종 노동연관효과 등과 관련된 분석결과를 정리,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IV장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나타난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II. 산업연관표 및 고용표 추정

산업연관표를 비조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생부문의 각 투입계수들을 어떤 방법으로 추정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에에는 RAS방법, 수정RAS방법, 평균증가배율법 등과 같이 각 행과 열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특정한 수를 곱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렴하는 행렬을 구하는 방법(scaling method)과 Lagrange승수법, 선형계획법, Entropy방법과 같이 주어진 제약조건하에서 목적함수를 최적화하는 방법(optimization)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비교적 손쉽게 계산이 가능하면서도 추정효과도 비교적 뛰어나 널리 사용되고 있는 RAS방법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1절에서 본고에서 산업연관표 추정을 위해 사용한 RAS기법에 대해 소개하고 이어 2절에서 산업연관표와 고용표 추정과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산업연관표 추정방법(RAS기법)

본고에서 산업연관표의 내생부문 추정을 위해 사용한 RAS기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RAS기법은 1963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R. Stone 교수가 제시한 방법으로 일명 양비례조정법(Biproportional Adjustment Method)으로도 불린다. 이 기법은 기준년도의 투입계수표(A표)로부터 예측년도의 투입계수 추정치를 구하기 위하여 예측년도의 중간수요계, 중간투입계, 총산출액을 추계한 후 중간재 구입의 대체에 따른 대체변화를 나타내는 행수정계수(r계수)와 한 부문의 생산에 있어서 중간재 사용비율의 변화를 나타내는 열수정계수(s계수)를 산출하여 이를 적용한 중간수요계 및 중간투입계가 추계된 예측년도의 중간수요계 및 중간투입계에 수렴할 때까지 반복 적용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RAS기법은 “양비례성의 가정”(biproportionality assumption)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상품 i 는 상품 i 가 투입된 모든 산업에서 같은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며, 각 산업에서의 총투입에 대한 중간투입의 비율변화가 투입으로 사용된 모든 상품에 대해 역시 같은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가정이다.

이제 RAS기법으로 투입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A(0)$, $X(1)$, $V(1)$ 및 $U(1)$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0)$: 기준년도의 투입계수행렬

$X(1)$: 추정대상년도의 산업별 생산액벡터

$V(1)$: 추정대상년도의 산업별 중간투입계벡터

$U(1)$: 추정대상년도의 산업별 중간수요계벡터

먼저 기준년도의 투입계수 행렬(A(0))과 추정대상년도의 산업별 생산액벡터(X(1))를 이용하여 추정대상년도의 중간거래행렬(M¹)을 만든다.

$$M^1 = A(0)\hat{X}(1) \dots\dots\dots (1)$$

다음에는 이 1차 수정된 거래행렬의 행합계 즉, 중간수요 합계 벡터를 구한다.

$$U_i^1 = [A(0)\hat{X}(1)] I = M^1 I \dots\dots\dots (2)$$

여기서 I 는 합벡터(모든 성분이 1인 열벡터)

이 계산결과와 추정대상년도의 산업별 중간수요계벡터(U(1))를 비교하여 제1차 행수정계수를 구한다.

$$r_i^1 = U_i(1)/U_i^1 \dots\dots\dots (3)$$

이 행수정계수를 사용하여 제2차 수정된 거래행렬을 구한다.

$$M^2 = \hat{R}^1 M^1 = \hat{R}^1 [A(0)\hat{X}(1)] \dots\dots\dots (4)$$

여기서 \hat{R}^1 는 r_i^1 의 대각행렬

다음에는 이 2차 수정된 거래행렬의 열합계 즉 중간수요 합계 벡터를 구한다.

$$V_j^1 = I' [\widehat{R}^1[A(0)\widehat{X}(1)]] = I' M^2 \dots\dots\dots (5)$$

이 계산결과와 추정대상년도의 산업별 중간투입계벡터(V(1))를 비교하여 제1차 열수정계수를 구한다.

$$s_j^1 = V_j(1)/V_j^1 \dots\dots\dots (6)$$

이 열수정계수를 사용하여 제3차 수정된 거래행렬을 구한다.

$$M^3 = M^2 \widehat{S}^1 = [\widehat{R}^1[A(0)\widehat{X}(1)]] \widehat{S}^1 \dots\dots\dots (7)$$

여기서 \widehat{S}^1 는 s_i^1 의 대각행렬

이와 같은 계산을 행수정계수(r_i^n)와 열수정계수(s_i^n)의 값이 1에 거의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추정하고자 하는 연도의 중간거래행렬과 투입계수행렬(A(1))을 구하게 된다.

2. 산업연관표 및 고용표 추정과정

본고에서 고용효과 등 분석을 위해 작성한 산업연관표 및 고용표는 2003년 산업연관표의 통합대분류(28부문)하에서 2006년을 대

상으로 추정하였는데 본고에서의 연구대상이 고용인만큼 산업연관표의 경우 2003년 가격기준으로 추정하였다. 이제 각각에 대해 추정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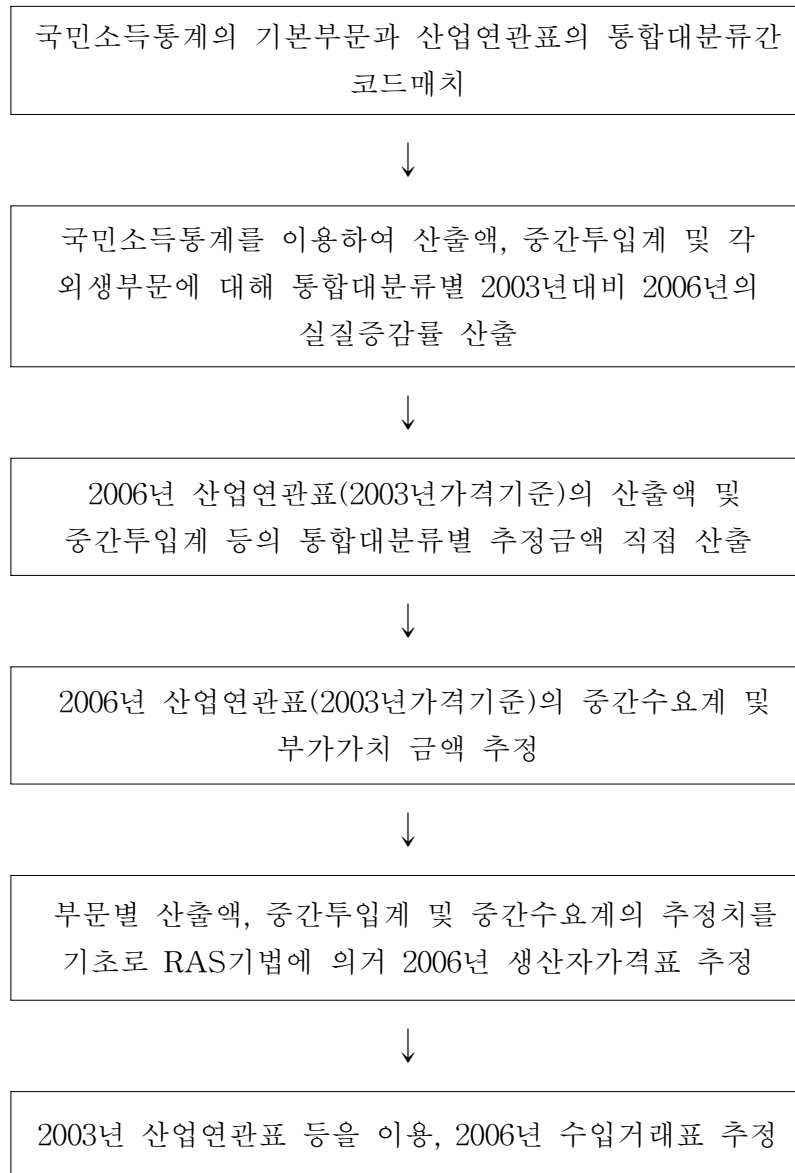
산업연관표의 경우 2003년 실측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통계의 실질증감률을 주로 이용하여 산출액과 부가가치, 최종수요 등 외생부문을 추정하고 내생부문은 앞 절에서 설명한 RAS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과정은 먼저 국민소득통계의 기본부문 분류체계를 산업연관표의 통합대분류(28부문) 분류체계와 매칭시키고 이어 국민소득통계를 이용하여 산출액, 중간투입 및 민간소비, 정부소비, 총고정자본형성, 수출 등 재고증감을 제외한 최종수요 그리고 수입의 2003년대비 2006년의 산업별 실질증감률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동 실질증감률과 2003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2003년 가격기준 2006년 산업연관표의 해당 부문 추정금액을 산출하였다. 한편 재고증감의 경우는 국민소득통계의 2006년 산출액대비 재고증감 비율 등을 이용하여 별도로 추정하였다. 또한 위 과정에서 추정된 각 부문별 금액들을 이용하여 산업별 부가가치 및 중간수요 금액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부문별 산출액 및 중간투입계, 중간수요계의 추정치들을 기초로 RAS기법에 의거 2006년 산업연관표중 생산자가격표(2003년 가격)를 추정하였다. 한편 2006년 수입거래표는 2003년 수입거래표의 각 셀별 금액대비 생산자가격표의 각 셀별 금액의 비중을 이용하여 1차적인 금액을 추정하고 동 금액의 각 산업별 행합을 앞에서 구한 수입벡터의 산업별 금액과 비교·수정하여 동 추정금액을 산출하였다.

<그림1>

2006년 산업연관표 추정과정



고용표의 경우 2003년 고용표와 경제활동인구통계의 2003년대비 2006년의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률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Ⅲ. 2006년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추정결과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추정한 우리나라의 2006년 산업연관표와 고용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분석결과를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취업구조

2006년 취업자⁴⁾수(연인원기준) 추정치는 1,846만 1천명으로 2003년 1,766만 5천명에 비해 79만 6천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의 취업자수가 176만 9천명으로 추정되어 2003년 193만 2천명에 비해 16만 3천명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1,162만 5천명으로 추정되어 2003년 1,071만명에 비해 91만 5천명 증가하고 제조업이나 건설업 취업자수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추이를 보면 농림어업 취업자수 구성비가 2006년 9.6%로 추정되어 2003년 10.9%에 비해 1.3% 포인트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제조업 취업자수 구성비도 18.0%로 추정되어 2003년 18.6%에 비해 0.6%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업 취업자수 구성비는 2006년 63.0%로 추정되어 2003년 60.6%에 비해 2.4%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에도 취업구조의 서비스화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취업자 = 피용자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표 1>

산업별 취업구조 추이

(단위 : 천명, %, %p)

	'00(A)	'03(B)	'06°(C)	증 감			
				'00~'03	<B-A>	'03~'06°	<C-B>
농 립 어 업	2,229 (13.4)	1,932 (10.9)	1,769 (9.6)	△297	<△2.5>	△163	<△1.3>
광 업	19 (0.1)	19 (0.1)	20 (0.1)	0	< 0.0>	1	< 0.0>
제 조 업	3,195 (19.2)	3,294 (18.6)	3,319 (18.0)	99	<△0.6>	25	<△0.6>
전 력·가 스·수 도	75 (0.4)	72 (0.4)	72 (0.4)	△3	< 0.0>	0	< 0.0>
건 설 업	1,249 (7.5)	1,638 (9.3)	1,656 (9.0)	390	< 1.8>	18	<△0.3>
서 비 스	9,910 (59.4)	10,710 (60.6)	11,625 (63.0)	800	< 1.2>	915	< 2.4>
전 산 업	16,677 (100.0)	17,665 (100.0)	18,461 (100.0)	989	-	796	-

주 : 1) ()내는 구성비(%), < >내는 구성비의 증감(%p)

2. 취업계수

전산업 평균 취업계수⁵⁾(2003년 불변가격 기준)는 2006년 9.0(명/10억원)으로 추정되어 1995년 15.9(명/10억원), 2000년 11.8(명/10억원), 2003년 10.4(명/10억원)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2000년 이후 그 속도는 둔화(1995~2000년:-5.8% → 2000~2003년:-4.1% → 2003~2006년:-4.7%)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계수 추이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계수가 2006년 3.4(명/10억원)로 추정되어 1995년 8.5(명/10억원), 2000년 5.1(명

5)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취업자수(피용자+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총산출액으로 나눈 계수로서 산출액 10억원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취업자수를 의미하며 노동생산성과 역수관계에 있고 $lw = Lw/X$ (Lw : 취업자수, X : 산출액)로 나타낼 수 있음. 따라서 취업계수가 낮으면 노동생산성이 높게 나타나고 취업계수가 높으면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남

/10억원), 2003년 4.2(명/10억원)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동 취업계수의 연평균변동률은 1995~2000년중 -9.7%에서 2000~2003년 및 2003~2006년중 각각 -6.3% 및 -6.8%로 하락속도는 둔화되었는데 이는 설비투자 부진⁶⁾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비스업의 취업계수도 2006년 14.8(명/10억원)로 추정되어 1995년 23.0(명/10억원), 2000년 16.4(명/10억원), 2003년 15.2(명/10억원)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동 취업계수의 연평균변동률은 1995~2000년중 -6.5%에서 2000~2003년 및 2003~2006년중 각각 -2.5% 및 -0.9%로 하락속도가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농림어업을 제외한 건설업이나 전기·가스·수도업 및 광업 등 여타 산업의 경우에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취업계수의 하락속도가 둔화되거나 오히려 취업계수 자체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국민계정”에 나타난 1985년 이후 우리나라의 전산업 연평균 설비투자 실질증감률은 다음과 같다

	1985~1990년	1990~1995년	1995~2000년	2000~2006년 ^e
전산업 설비투자증감률(연평균, %)	18.0	11.4	0.8	2.2

<표 2>

산업별 취업계수¹⁾ 추이

(단위 : 명/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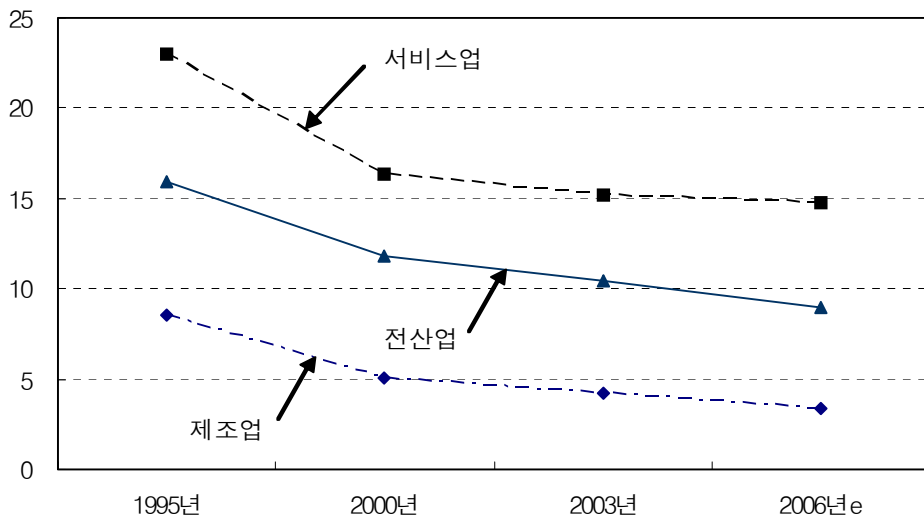
	'95	'00	'03	'06 ^e	연평균 변동률(%)		
					'95~'00	'00~'03	'03~'06 ^e
농 립 어 업	51.4	51.3	49.3	42.3	0.0	-1.3	-5.0
광 광 업	11.1	6.6	5.6	5.8	-9.9	-5.3	1.2
제 조 업	8.5	5.1	4.2	3.4	-9.7	-6.3	-6.8
전 력 · 가 스 · 수 도	3.2	2.2	1.8	1.5	-7.2	-6.5	-5.9
건 설 업	10.6	11.7	11.6	11.8	2.0	-0.3	0.6
서 비 스	23.0	16.4	15.2	14.8	-6.5	-2.5	-0.9
전 산 업	15.9	11.8	10.4	9.0	-5.8	-4.1	-4.7

주 : 1) 취업자수 / 2003년가격기준 불변산출액(10억원)

<그림 2>

산업별 취업계수 추이

(명/10억원)



3. 취업유발계수

전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⁷⁾(2003년 불변가격 기준)는 2006년 15.3(명/10억원)으로 추정되어 1995년 26.5(명/10억원), 2000년 19.4(명/10억원), 2003년 16.9(명/10억원)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하락속도는 둔화(1995~2000년:-6.0% → 2000~2003년:-4.5% → 2003~2006년:-3.3%)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계수 추이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유발계수가 2006년 10.2(명/10억원)로 추정되어 1995년 22.1(명/10억원), 2000년 14.9(명/10억원), 2003년 12.1(명/10억원)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동 취업유발계수의 연평균변동률은 1995~2000년중 -7.6%에서 2000~2003년 및 2003~2006년중 각각 -6.7% 및 -5.5%로 하락속도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업 취업유발계수도 2006년 19.9(명/10억원)로 추정되어 1995년 30.9(명/10억원), 2000년 21.9(명/10억원), 2003년 20.5(명/10억원)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동 취업유발계수의 연평균변동률은 1995~2000년중 -6.7%에서 2000~2003년 및 2003~2006년중 각각 -2.2% 및 -1.0%로 하락속도는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기·가스·수도업 및 광업 등 여타 산업의 경우에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취업유발

7) 해당 부문의 소비나 투자 등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하는 경우 해당 부문과 다른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로 해당 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취업자 뿐 아니라 생산과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취업자까지 모두 합한 개념임. 동 계수는 취업계수에 생산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출함(취업유발계수 = $\hat{l}_w(I-A^d)^{-1} \hat{l}_w$: 취업계수, A^d : 국산투입계수)

계수의 하락속도가 둔화되거나 오히려 취업유발계수 자체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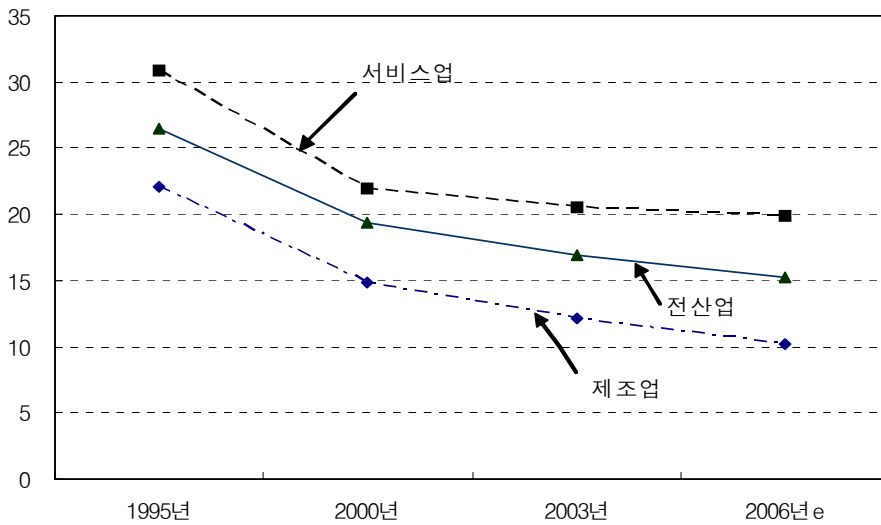
(단위 : 명/10억원)

	'95	'00	'03	'06 ^e	연평균 변동률(%)		
					'95~'00	'00~'03	'03~'06 ^e
농 립 어 업	60.9	59.7	57.6	50.1	-0.4	-1.2	-4.5
광 업	17.3	11.0	9.8	10.3	-8.7	-3.8	1.7
제 조 업	22.1	14.9	12.1	10.2	-7.6	-6.7	-5.5
전 력 · 가 스 · 수 도	8.2	5.4	4.4	4.2	-8.0	-6.6	-1.5
건 설 업	19.9	19.5	18.7	18.3	-0.4	-1.4	-0.7
서 비 스	30.9	21.9	20.5	19.9	-6.7	-2.2	-1.0
전 산 업	26.5	19.4	16.9	15.3	-6.0	-4.5	-3.3

<그림 3>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명/10억원)



4.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효과

2006년 최종수요 항목별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⁸⁾를 추정해본 결과, 소비가 19.2(명/10억원)로 가장 높으며 투자 13.9(명/10억원), 수출 10.3(명/1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5년 이후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의 추이를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소비와 투자의 경우 2000년 이후 취업유발계수의 하락세가 뚜렷이 완만해진 반면 수출의 경우는 최근들어 약간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취업유발계수의 급격한 하락세가 2000년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취업유발계수의 경우 2000년까지는 투자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3년에 역전되고 2006년에는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유발계수의 하락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정보통신기기 등 자본, 기술 집약적인 제품의 수출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동 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섬유 및 가죽제품 등 경공업제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⁹⁾.

8) 최종수요 항목별로 최종수요 10억원이 유발한 취업자수로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인원을 항목별 최종수요액으로 나누어 계산

9) 우리나라의 최근 경공업제품과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비중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2006년
경공업 제품 비중(%)	39.8	24.3	17.6	14.1	8.3
중화학공업제품비중(%)	54.4	69.6	74.1	79.8	83.1

<표 4>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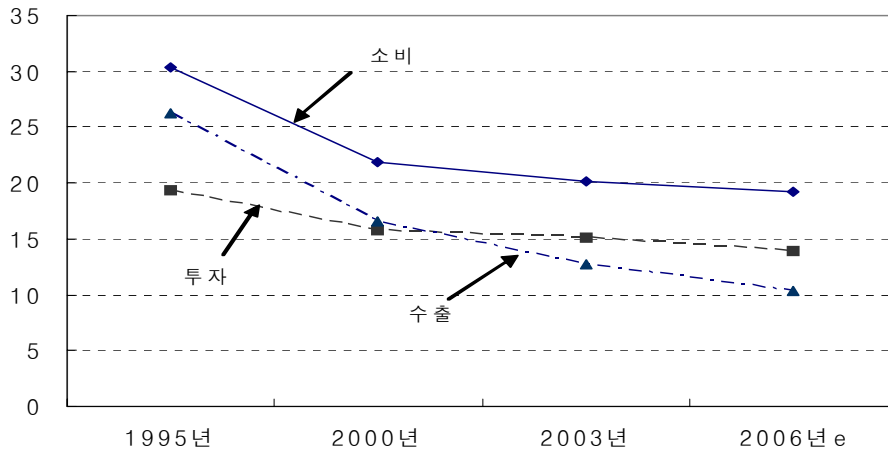
(단위 : 명/10억원)

구 분	'95	'00	'03	'06 ^e	연평균 변동률(%)		
					'95~'00	'00~'03	'03~'06 ^e
소 비	30.4	21.9	20.2	19.2	-6.3	-2.7	-1.7
투 자	19.4	15.8	15.1	13.9	-4.1	-1.5	-2.7
수 출	26.2	16.6	12.7	10.3	-8.7	-8.5	-6.7
평 균	26.1	19.2	17.1	15.2	-6.0	-3.8	-3.9

<그림 4>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명 / 1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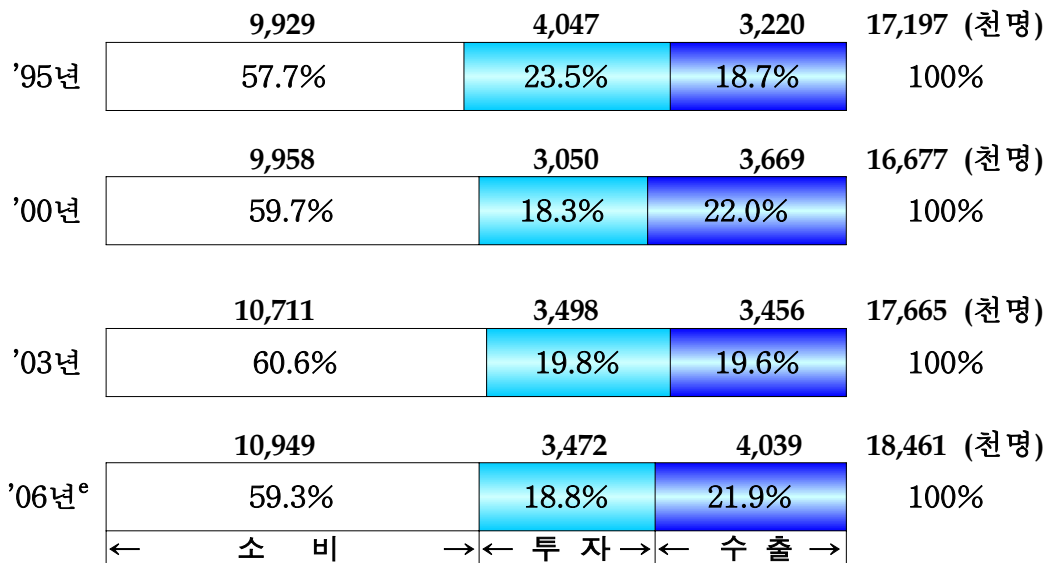


2006년 총 취업자수 추정치 1,846만 1천명에 대한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인원의 의존도를 보면 소비에 의해 취업유발된 인원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출 21.9%, 투자 18.8%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 항목별 취업유발 의존도를 2003년과 비교해보면 소비 및 투자의 취업유발의존도는 각각 1.3%포인트 및 1.0%포인트 낮아진 반면 수출에 의한 취업유

발의존도는 2003년에 비해 2.3%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2006년에는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의존도가 투자에 의한 취업유발의존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소비나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부문이 성장을 주도함에 따라 수출부문의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 5>

취업유발의 최종수요 항목별 의존도



IV. 요약 및 시사점

본고는 서비스화와 같은 우리나라 고용구조상의 변화가 최근에도 지속되는지 그리고 2003년 고용표를 통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취업계수 하락속도 둔화 및 소비, 투자와 같은 내수부문과 수출부문의 취업유발계수 하락속도 차이 확대 등과 같은 현상이 일시적 현상인지의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통계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RAS기법에 의거 2006년 산업연관표 및 고용표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2006년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를 측정하여 보았다.

그 결과 취업구조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도 기존의 서비스화 현상이 비교적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3년 고용표를 통해 특징적으로 나타난 현상 즉 전반적인 취업계수 하락속도 둔화 및 내수부문과 수출부문의 취업유발계수 하락속도 차이 확대 등과 같은 현상이 2006년에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 이어 2006년에도 전반적인 취업계수 하락속도 둔화 및 내수부문과 수출부문의 취업유발계수 하락속도 차이 확대 등과 같은 현상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현상을 야기한 주요 원인이 된 설비투자 증가율의 둔화나 전체 수출

에서 차지하는 자본, 기술집약적인 제품의 비중상승 등과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2003년에 나타났던 이와 같은 현상이 2006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 및 투자와 같은 내수부문 특히 서비스부문에 좀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취업유발계수가 여전히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수출부문에 대해서는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 등을 통해 수출의 국내산업이나 고용에의 파급효과를 증대시키는 한편 동시에 국내 경기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큰 기계류나 섬유제품 등에 대한 수출활성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취업계수 하락속도 둔화 현상과 관련하여 이는 단기적으로는 고용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의 둔화를 의미하므로 중장기적인 대외경쟁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이로 인해 나타날 노동력 부족현상 등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잠재성장능력 확보를 위해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인 바,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고종환, “매년 산업연관표 작성기법에 관한 연구”, 『계간국민계정』 2002년 제4호, 한국은행, pp. 30-94.
- 권태현·진수원·문혜정, “매년 산업연관표 작성 방법”, 『계간국민계정』 2001년 제2호, 한국은행, pp. 65-87.
- 이춘근, “지역산업연관분석론”, 2006년 7월
- 박성빈·나성오, “「2003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 『조사통계월보』 2007년 5월호, 한국은행, pp. 67-104.
- 한국생산성본부, “제조업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분석”, 2005년
- 한국은행, “2003년 산업연관표”, 2007년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2004년 3월
- Michael L. Lahr & Louis De Mesnard, 「Biproportional Techniques in Input-Output Analysis: Table Updating and Strucural Analysis」, Economic Systems Research, Vol. 16, No. 2, 2004
- Ronald E. Miller, Peter D. Blair,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s」,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5